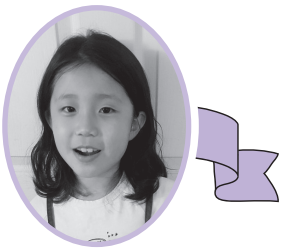
동상

동상

국토 지킴이가 될거야!



최아영 | 수원 일월초등학교 2학년

내 이름은 애니카다. 나는 오늘 놀이공원에 간다. 나는 평소보다 설렜어. 왜냐하면 오늘은 친척들과 가는 여행이었거든. 이모와 이모의 아들 피터가 온단다. 나는 내 여동생 라라벨을 높이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 "이야! 신난다! 이모와 피터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다니! 정말 신나!" 엄마가 소리쳤어. "애니카, 짐은 다 챙겼어? 양말은 신었고?" "신었어요!" 엄마는 나보다 더 신난 것 같았어. 그때 '빵빵!' 경적 소리가 나더니 이모가 유리창으로 고개를 배꼼 내밀었어. "어서 타, 애니카!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이모." 우리는 이모의 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출발했어. 차를 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모가 간식으로 싸온 꿀꿀과자를 먹으면서 가니 금방이었어. 드디어 놀이공원에 도착하였고 놀이공원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 우리는 표를 사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우리 회전목마 타자." "그래, 좋아." 우리는 제일 줄이 짧은 회전목마

쪽으로 뛰어 갔어. “자! 출발합니다!” 빙빙 회전목마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꺄아악! 으악!” 갑자기 회전목마가 빨리 돌더니 삑삑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데려갔어. 그곳에는 엄마들이 쓰다버린 고무장갑, 콜라 캔, 과자봉지, 플라스틱 물병 등이 있었는데 그 물병 안에는 썩은 물이 들어있었어. 어느새 일어난 피터가 고함을 지르며,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으악! 누나가 어른으로 변해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피터! 너도야! 일단 가보자.” 우리는 쓰레기들을 피해 걸으며 낡아가는 간판을 보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 거기엔 놀이동산이라고 적혀있었거든. “여기가 놀이동산이라고? 하늘은 갈색이고, 식물도 다 말라있어!” 그때 공중에서 희미한 빛이 스르륵 땅으로 내려왔어. 그 희미한 빛은 계속해서 빛나더니 빙그르르 돌며 뽕! 소리와 함께 한 요정이 나타났어. “안녕? 내 이름은 키미야. 만나서 반가워. 지금은 2040년 5월 13일이야. 너희들은 놀이동산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는지 아니? 그건 바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이야. 난 아직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살던 나무가 다 베어지고 그 바람에 나는 친구들을 잃었다고! 너희들은 꿀꿀 과자를 먹고 땅바닥에 버리고 콜라를 먹고 캔을 팽개쳤지. 그게 얼마나 내 아픔인줄 알아?” “어……. 미안해……. 귀찮고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그게 장난이니? 그리고 매연 때문에 하늘이 아파해. 너희들은 집에서 3분밖에 안 걸리는 마트를 갈 때도 차를 타고 가잖아. 너희들이 나 좀 도와줘. 이리 와봐.” 우리는 키미를 따라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갔어. 그곳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파리가 왱왱 거렸어. “자, 얘들아 우리 같이 여길 치우자. 이 집게로 쓰레기를 줍자.” 나는 콜라 캔, 과자봉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어. 힐긋 보니 피터는 꽃과 나무를 심고 있었어. 길게 자란 잔디도 깎고, 죽어가는 식물들에게 물도 주었어. 놀이기구

도 새로 수리했어. 페인팅을 하고 물 묻힌 수건으로 벤치도 닦았어. “자! 다 되었어. 너희들이 도와주어서 놀이공원이 다시 예뻐졌어! 정말 고마워.” 키미가 싱글벙글 웃었어. 그 순간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우리는 다시 2020년으로 돌아왔어. “만세! 누나! 우리 환경 지킴이와 국토 지킴이가 되자!” “좋아!” 나는 소리쳤어. 우리는 와구와구 초콜릿을 뜯어 먹었어. 쓰레기를 치우느라 배고팠거든. “초콜릿 껍질 그냥 바닥에 버려.” 라라벨이 말했어. “안 돼! 하늘과 땅이 아파한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아니면 킥보드를 타고 다닐 거야! 국토 지킴이가 될 거라구!” 엄마와 이모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 나는 오늘도 키미와의 만남을 추억해. 국토 지킴이 키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